**<푸틴의 리더십 평가> (정리요약문)**

 **강연자: George Breslauer(미 버클리대 부총장)**

정리자: 이경완(에너지경제연구원)

일시: 2006.5. 11. 목. 14:00-16:00

주최: 서울대 러시아연구소 & 국제학연구소 공동주최

부제 : 푸틴의 전략의 장기적인 미래 전망

1. 푸틴의 집권 전 1990년대 러시아 경제, 사회 상황 - 안정성과 질서 부재 상황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불안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이 부재

재정적인 위기

체첸 독립 운동 저지

러시아인들은 부도덕해져 감

- 소비에트 붕괴이후 민주주의는 무정부 상태를, 자본주의는 12인의 거부들이 국고 대부분을 소유하는 부의 편중 체제라는 사회적 부정의를 야기시킴. 이로 인해 러시아의 미래에 대해 대중적 환멸(popular disillusion)이 지배적이던 상황.

1. 푸틴 집권 (2000년 3월)

공약 : 질서, 예측가능성

정책 : 사회, 정치 체제를 대통령 하에 복속, 총괄. 대통령 권한 강화

 군대와 비밀경찰 출신의 관료들이 행정부 포진

 지방 주지사 권한 제한(직선제에서 대통령 임명제로 법 개정)

 대중, 언론 매체 탄압, 통제, 공식․비공식 검열

 1990년대 사회, 정치 혼란기에 대부호가 된 에너지 기업주들(Oligarchs)에 대한 탄압

 체첸의 독립 운동에 대한 강경, 비타협적 대응 - 테러와의 전쟁으로 규정

3. 푸틴의 높아지는 인기 원인 (체첸전과 관련하여 65%에서 80%로 상승)

1) 질서와 사회정의 회복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

2) 경제, 사회 정책이 실효 거둠 - 순전히 고유가로 경제가 연 6-7% 성장한 덕분임.

3) 대중 매체를 통한 긍정적 이미지 창조, 상징적 효과

 옐친과는 달리 젊고 힘차고 지적이며 정보에 밝고 강하고 꾸준한 성품의 지도자라는 인상을 심어 줌.

4) 패권국으로서 강한 러시아에 대한 향수.

 구세대 : 소비에트 시대에 대한 노스탤지어

신세대 - 국제 사회, 국제 기구들에 당당한 일원으로서 참여하여 힘차게 활약하는 강한 러시아를 기대.

푸틴은 외교적으로 신세대의 기대를 충족시킴

미국, 유럽, 중국, 인도, 일본 등 세계 강대국들과 동등한 차원에서 정상적인 우호관계를 맺음.

잠재적인 대립주의에서 실용적인 협력 정책으로 이행.

- 국제 사회에서 존경받는 러시아의 위상을 회복하고, 국제 관계를 이용하여 러시아 경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

2006년 G-8개국 회담에서 의장국을 맡음.

고르바초프 이후 추락과 상실만 경험하던 러시아가 이제 상승과 복원의 길에 들어섬.

5) 체첸 전에 반대했던 러시아인들이 연이은 테러에 의해 푸틴 지지 세력으로 돌아섬.

 1994, 1996년 두 차례 체첸 전쟁 이후 집권 직전 1999년 가을 3차 체첸전이 있었음. 물자와 인명 손실 막대.

2000년대 초 모스크바 극장 테러, 두 대의 비행기 추락. 베슬란 초등학교 사태 발생으로 인해 체첸인들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감정 악화. 푸틴의 강경 대응이 큰 지지를 얻게 됨.

6) 마지못해 수긍, 용인(resigned acceptance)하는 면도 있음.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듯이 보이는 상황에서 더 좋은 대안이 없고, 적어도 러시아가 상실한 자긍심을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푸틴을 지지하기도 함.

검열 강화를 통해, 반대 세력을 약화시킨 결과이기도 함.

--- 푸틴 지지층은 넓지만 매우 얇다.

4. 푸틴의 독재주의(권력주의, authoritarianism)

 -브레쥬네프, 스탈린 식의 독재주의보다 완화된, 다원주의pluralism을 허용하는 독재주의

그러나 1990년대와 비교해보면 민주주의에서 후퇴하는 것은 분명.

체제, 권력의 공고화(consolidation) 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음.

러시아, 소비에트 역사의 주기 : 체제 전환(transformation) →체제 공고화(consolidation)→체제 전환→체제 공고화

고르바쵸프, 옐친은 체제 전환기에 해당.

브레쥬네프, 푸틴은 체제 공고화 시기에 해당.

체제 공고화 시기에 국가가 외적으로는 강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국가의 신뢰도reliability, 행정적 수행능력, 부패 제어 수준 등으로 보면 오히려 약해지는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됨.

**체체공고화 시기는 매우 한시적임.**

5. 러시아 지식인들의 입장

 고등교육 받은 젊은 엘리트 : 자기 의견, 관점에서 푸틴 정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함. 관료주의, 부패, 편중되고 왜곡된 부 축적에 대한 불만.

실제 사회상 : Demographic decline - 인구조사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간 러시아는 쇠퇴하고 있음 - 높은 영아 사망률, 높은 사망률, 낮은 평균 수명, 마약과 AIDS의 증가.

6. 2006년 5월 10일 대국민 발표 내용

출산 장려, 세계의 민주주의 추세에 편입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 여행 보급,

EU와 미국, 기존 소비에트 국가 중 현재 반러시아적인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키르기스탄에 대해 conditionality, 이중 노선 정책 추진

- 푸틴의 외교 노선은 극단주의의 강화 혹은 실용주의와 양보의 길로 나갈 전망.

정치 이데올로기 - 실용주의, 온화한 민족주의 취하고 있음.

부패와 관료주의 수위가 높음.

**교육층은 부패와 관료주의에 대항하여 더 나은 이데올로기와 정책 수립 및 시행을 기대**.

**우익 극단주의와 민주주의 및 자유화 이념의 기로에 서 있음.**

7. 시사점

정치 통제 강화와 대통령 권한 강화로는 부패와 관료주의 청산이 불가능함을 증명

다양한 민주주의 세력들이 강화되어야 함.

러시아인들은 푸틴이 받아들일 만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

대안이 있고 없음의 지대한 차이 - 고르바쵸프 시기에 대안에 대한 희망 존재, 1998-1999년에는 대안이 없다는 분위기. 푸틴은 혁명, 반혁명, 극단주의 모두 러시아의 대안이 될 수 없고 오직 consolidation 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

8. 전망

2008년 정권 변화 이후에도 단기적인 변화 없을 것으로 예상.

체제는 그 체제로 인해 대중의 욕구가 채워지는 한 존재. 체제의 지속성.

2020년 경이면 현 체제가 더 이상 대중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함으로써 변화될 것으로 예상.

Q&A

1. Power - 푸틴의 권력은 헌정 질서를 파괴할 정도는 아님

 Authority - 푸틴의 정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두느냐가 변수로 작용. 큰 변화는 없을 듯함.

2. Oligarchs - 푸틴과 공조 관계.

3. 푸틴의 서구, 중국, 일본에 대한 전략에 있어서 중국, 일본에 대해서는 그다지 정책적으로 진전이 없는 것 같음.

4. 러-우 가스 분쟁에 대해 러시아의 예측불가능성으로 설명하는데 반대.

우크라이나와의 구체적인 역사적, 민족적, 정치적 관계망 속에서 나온 상황적인 대응책임.

구조적인 대응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함.

5. 미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중 기준 double standard :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의 독재 정부는 민주적이라고 칭찬, 러시아는 반민주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일관되지 못한 태도. 그런 이중적 태도는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

6. 권하는 도서 : M. Steven Fish- Democracy Derailed in Russia - 1990년대 러시아 정치에 대한 연구서. 체제전환기에 민주화가 공고화로 이어지는 것이 관례임에도 푸틴 시대에는 민주주의 붕괴 이후 와해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